

막장 드라마 만연에 대한 우려

‘올바른 선택’ 보단 ‘쉬운 선택’에 대해 커지는 우려

김봉현 |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bkim3@dongguk.edu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을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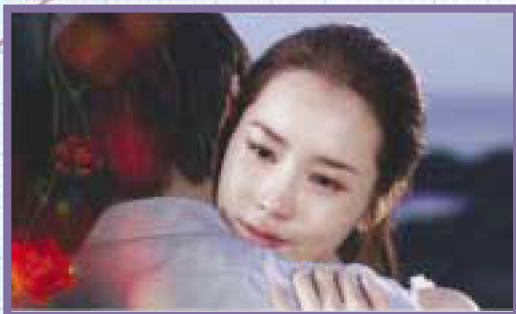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을 앞두고 불만찬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시청자들의 기대와 함께 과도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내년도 광고시장의 규모가 불보듯 뻔한데다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방송사들이 그만큼 나누어 가질 몫이 줄어들어 치열한 광고유치전과 함께 시청률 경쟁 또한 치열할 것이라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막장’ 바이러스가 거의 모든 프로그램 장르에까지 번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체 시청률 순위에서 이들 프로그램들의 위력은 매우 크다. 욕하면서도 본다는 이들 ‘막장적’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후속하는 광고를 시청하는 ‘광고시청률’ 또한 성별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에 걸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필자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전통적으로 광고주는 “어디에 광고를 해야할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대로 시청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결국 높은 시청률은 곧바로 높은 광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과거 일부 케이블 채널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선정적인 드라마를 경쟁적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다. 종합편성채널 역시 단기간에 자리매김 하기 위해 시청률 경쟁에 나설 경우, 지상파나 기존의 케이블PP들 역시 시청률 경쟁 대열에서 낙오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시청률의 무한경쟁은 선정성 경쟁과 함께 ‘막장적’ 프로그램이 범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게 현실이다.

매년 증가하는 제재 건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초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를 그리는 소위 막장드라마와 저속한 표현이나 막말 등으로 억지웃음을 이끌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을 집중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해당 방송을 제작한 언론사와 사업자에 통보하고 업계의 자율개선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영방송 KBS 역시 미녀들의 수다 리는 프로그램에서 루저발언' 이후에 방송의 소재 및 표현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체심의 결과 상습적인 막말과 비속어 사용으로 3회 이상 지적된 출연자는 프로그램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가운데 지상파방송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에 대한 제재 건수는 작년 상반기에는 16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31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제재 건수의 증가는 이른바 '막말' 방송과 저품격 드라마에서 기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수준 낮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정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매년 제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보인다는 생각이다.

정부 심의기관과 방송사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한계

지난 호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저속한 표현조차 수정조항 제1조' 아래 보호받는 미국의 경우조차도 특정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도 동시대의 사회통념이나 기준을 토대로 명백하게 불쾌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하는 장면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보다 많은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단기적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자극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마다하지 않는 영국의 상업방송사인 ITV(Independent Television)조차도 어린이나 청소년의 시청 기능 여부에 따른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경계선을 의미하는 'Watershed'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 즉,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은 9시 이후에 방영한다는 원칙 준수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인 FCC만으로 저속한 프로그램을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방송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일반 공중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불만사항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추세이다. 즉, FCC가 저속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제재를 책임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일반시청자 혹은 대중으로부터 접수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내용을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막장식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로 단순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제재나 방송사의 자정노력에만 오로지 의지하기 보다는 시청자들과 일반대중이 자



신들의 시청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방송전파는 일반 공중의 소유이지 방송사의 것은 아니며, 방송사는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권한을 부여받아 교육 및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따라서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사들이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방송사가 '어떤 내용을 방송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방송사에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반대중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중순경 방송전파를 보호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견제세력으로서 시청자의 역할을 증대하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즉, 어린이의 TV 시청 가능 시간대에 과도한 폭력, 섹스, 막말 방송과 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경우 시청자가 불만내용을 손쉽게 제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심의기관인 어린이TV시청전국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hildren's Television: NCCT)에 즉시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단문메시지(SMS) 형식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육청, 어린이복지위원회, 전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의 3명의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어린이 시청 가능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방영되는 모든 TV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심의결과에 따라 벌금,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 혹은 중지라는 중징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단체 중의 하나인 텔레비전시청자부모위원회(Parents Television Council)는 방송에서의 저속한 프로그램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들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계제를 철회하거나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활동을 펼치는 소비자단체는 매우 다양하다.

물론 어떤 이는 방송에서의 '막장식' 소재나 표현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항변하거나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설사 그 내용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 하더라도, 단지 말초적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극적으로 각색되고, 그래서 더욱 정상적이지도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은 내용들을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는 시간에 마치 일반화된 내용처럼 보여주는 것이 과연 방송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방송에서 프로그램 표현의 자유와 현실 반영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대중에게 가급적 동시대의 공유된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긍정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나 국가 경제 발전과 경제 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화되면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사회에 이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조직이 어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뿐이겠는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KAA**